

“흙으로 진실 빛고 지혜 구워요”

산문박의 100년

도예가 한익환 翁

달아 달아
십오야(十五夜) 둥근 달아
조선의 달 향아리
조선의 대호
그 언저리를 흐르는
소박한 흐름의
수더분한 향내
살익은 듯
모란이 풍기는
온화한 땀시
조화로운 불이(不二)
그
고요속에 파묻힌
조선의 큰 향아리
-한익환 시 '조선의 달 향아리'

“
도자기에 내 영혼 넣는다고
그 많은 세월 부서 깎지만
흙의 참맛 알게 되면서
인간의 길 깨닫게 되었다
”

자에 발려진 유약이 섬세 1천3백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아흘러 순백색을 내뿜는다.
한웅은 1948년 대한도자기제작사 이사장의 권유로 도자기기술원 양성소에 들어가면서 도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후 서울의 중앙공업연구소 요업과를 거쳐 同 연구소에 개설된 상공부 주관 고등기술원 양성소에서 요업과 과정을 마침으로써 기초를 다졌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국 각지의 도자기 제작회사에서 7년여동안 기술핵



자연 스승삼아 반백년 '백자재현' 유약·안료등 독특한 배합방식 터득 흙과 나 하나될때 작품 생명력 있어 “평생 가마불 곁에서 무념무상 공부”

임자로서 생활도자기를 연구, 실험하기도 했다. 그러다 한 공돌이정에서 조선백자를 접하면서 전통백자의 여유롭고 단정한 형태, 색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익요(益窯)를 열고 전통백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선백자 특유의 백색을 복원하기 위해 도자기 기술자로서 탄탄대로의 미래를 보장받던 직장을 내걸려 버린 것이다.
피끓는 노력의 결과일까. 그의 가마에서 영혼으로 빚어내는 한웅의 백자는 조선백자와 형태가 같음은 물론 그 빛깔도 뒤지지 않아 젊은 청색을 뽐내고는 백색이 깊고 청아하기 그지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는 청화백자의 색도 조선전기나 중기백자 청화색과 견줄만 하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이 는 수십년동안 조선백자를 연구하여 흙, 유약, 안료의 독특한 배합방식을 터득한 결과다. 한웅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연인과의 끝없는 대화로 여긴다. “너의 가슴을 나의 품안에 끌어안는다/ 내 마음의 편안함이어라/ 그대 이름은 조선의 백자 나의 청백자...”
물레를 돌리고 문양을 새겨넣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웅은 한번 자리를 틀고 앉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진지한 모습으로 웅골찬 집인의 모습을 보인다.
“조선백자는 도자기마다 다른 여성적인 부드러운 선과 낭성적인 강인한 선, 청색을 머금은 조선백자 특유의 아름다움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하지요.” 조선백자는 평범의 미덕을 보여준다.

도필선 기자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문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친구로부터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공부하리라 마음 먹은 날, 꿈에 한 스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있는 옛 절 터로 나를 데려가 촛불 오백 개를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짐사림이 내게 마음공부를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이 모여 스님 설법의 녹화테이프를 구해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화면을 통해 처음 뵈게 된 스님의 모습이 꿈속의 스님 모습과 같아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알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수석 중에 하나를 일년 전에 어느 절에 맡겨 놓았는데 중간을 절단하여 위 아래를 따로 보관하였다가 기한이 되면 서로 맞춰서 꼭 맞으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위부분을 보관했는데 마침 맞추어보니 아래 위가 딱 맞아 그걸 찾아가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수석에서 붉은 색의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내용이 특이한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쭙니다. (최중호·경북 구미시 송정동)

준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이세계가 불쾌한 생각을 하니가 좋은 쪽으로 풀려서 그냥 한 생각 일었던 것입니다.
처사님의 꿈을 굳이 해몽하자면 이제 과거의 공부인연을 따라 다시금 공부할 인연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 공부야말로 위 없는 도리이며 세상을 환히 밝히는 법으로서 처사님 개인적으로는 위로 조상의 목은 빛을 갖고 아래로는 자손에게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수석을 아래 위로 맞춰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는 것은 이 마음공부란 상체만 있고 하체가 없어서는 안되는 공부로서 전자의 의식과 후자의 의식이 부자가 상봉하듯 꼭 결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사님께서 더 좋은 뜻으로 풀이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런 꿈도 생각도 다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거기 에 다 맡겨 놓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입니다.

사람다운 본성 잃는 것 같아

문 요즘 사람들은 백이면 백, 거의가 다 물질에 얽매어 사람다운 본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 상 상 탐

길 잃은 이 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탐은 조계종 한양문선원 대현스님께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낸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답 예전에 이세계가 이상한 꿈을 꾸었던 적이 있다.
방 안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거울이 와르르 깨어지다가 하면 마당을 내다보니 꽃이 우수수 지고 대문에는 허수아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세계는 심히 불길한 꿈인듯 싶어서 무학대사에게 해몽을 부탁했더니, 무학대사의 꿈 해몽은 이러했습니다.
까마귀가 까옥까옥 운 것은 명성을 크게 떨친다는 뜻이고 거울이 와르르 깨진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이며 꽃이 졌으니 곧 열매가 열릴 것이다. 때문에 허수아비가 매달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울려다 볼 조조라 필시 새 왕조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꿈에 겪은 일들을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꿈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눈뜨고 이것 저것 떠도는 생각이나 꿈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전자의 업식으로 인한 것이니 그대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경계가 다가오면 그게 다 주인공의 나뭇이 니 그때마다 한 생각 돌려 놓고가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꿈에 머리 푼 귀신을 보았다 할지라도 되풀이 하면 그뿐입니다. 가령 귀신을 봤다 해서 종일토록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한 생각의 힘이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무학대사가 한 해몽이라는 것도 어떤 기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지기를 돌이키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는지요.
(송재홍·경기 고양시 행신동)
이 인간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공생이요 공용, 공식이요 공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 나를 갈라놓으려는 한 30%쯤 남을 인정한다고 할까, 한 70%는 저 잘되기를 바라던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규정을 지어서 자신을 그 속에 가두려고 항상 제 소견으로만 세상을 살아갈려고 하니가 이게 진리에 순응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수레가 길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온통 요동을 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바퀴살이 부러져 그만 주저 앉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사는 일이 온통 고되고 육신도 성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걸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몰아 넣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지요? 너와 나, 내가 가서는 만들까지 포함해서 공심으로 공용·공식하며 공생한다면 그대로 공체이니 마음으로 무한의 모용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 소견에 갇혀서 탐욕이나 부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커녕 미워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그런 생각이 날날이 내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다가 그게 현실로 되 돌아 나오며 나를 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거나 하지요. 그래서 말하면 말하지만 한 생각의 힘이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무학대사가 한 해몽이라는 것도 어떤 기

1997학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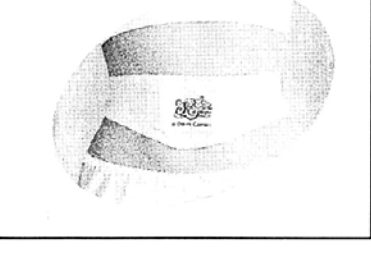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교역자의 의의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1) 1학년 상주권공과 신입생 00명 (교수: 조인각 스님)
(2) 2학년 각 배 과 편입생 00명 (교수: 이기봉 스님)
(3) 3학년 영 산 과 편입생 00명 (교수: 한동희 스님)
(4) 연구과정 범음과(갯소리) 00명 (교수: 박송암 큰스님)
(5) 초급 단계과정 3개월 00명 (교수: 이기봉 스님)
(목탁, 징, 북 치는 법, 도량식, 복장제,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등 특별강의)
2. 교수진: 박송암큰스님 직강
3.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5매, 증명사진 3매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7년 3월 26일 ~ 4월 10일까지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범음대학 교학처 (02) 392-3007-8
7. 합격자 발표: 1997년 4월 12일 발표, 개별통지
8. 특 전: (1)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2) 범음연구생으로 우선 채용함.

1997년 3월 26일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內
☎ 392-3007~8, FAX 393-945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껍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항비(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통,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뒷꿈이 고통스럽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글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감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